



홋카이도와 부산광역시 교류의향서 체결(2005년 12월)

동아시아 지역의 눈부신 경제발전과 근래에 들어 밀접해진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홋카이도는 일한우정의 해를 맞이하는 2005년부터 대한민국 제 2의 도시 부산광역시와 교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부산항과 홋카이도의 네 개의 항구는 정기 컨테이너 선박으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그 외에도 홋카이도와 부산은 깊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한국의 남방과 일본의 북방이라는 지역적 특성은 양 지역의 활성화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상호 믿음으로 홋카이도는 부산광역시와 교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류를 위한 제반 사무협의를 마친 후, 교류의향서 조인을 위해 홋카이도지사를 선두로 한 도의원, 국제 교류단체, 경제계 인사, 요사코이 소란 무용단으로 구성된 총 70 명의 방문단이 2005년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의 일정으로 부산광역시를 방문했습니다.

부산광역시시장과의 회담에서는 인적교류나 경제교류 등 상호 유익한 분야에서의 교류를 추진하고 민간분야의 교류활동을 촉진할 것을 확인하는 '교류의향서'에 조인했습니다. 교류의향서 조인을 계기로 양 지역에 대한 상호이해가 깊어지고, 경제교류나 문화교류를 시작으로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가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기 항공 노선

- ①부산(김해)-삿포로(신치토세)
2006년 6월 개설(주 3편, 화/목/토, 대한항공)
- ①서울(인천)-삿포로(신치토세)
1989년 6월 개설(주 7편, 매일, 대한항공)
- ②서울(인천)-아사히카와 (09년 11월부터 임시중단)
2006년 6월 개설(주 2편, 화/금, 아시아나항공)
- ③서울(인천)-하코다테
2006년 6월 개설(주 3편, 화/목/일, 대한항공)



- ① 삿포로(신치토세)
- ② 아사히카와
- ③ 하코다테

※ 컨테이너 정기 항로

- 부산항-도마코마이항(苫小牧港)
1995년 개설 주 6편 정도
- 부산항-이시카리만 신항(石狩湾新港)
1997년 개설 주 1편 정도
- 부산항-구시로항(釧路港)
2002년 개설 주 1편 정도
- 부산항-하코다테항(函館港)
2005년 개설 주 1편 정도

(사진) 교류의향서 조인식에서 다카하시 하루미 홋카이도지사(왼쪽)와 허남식 부산광역시장(오른쪽)

삿포로-부산 영화로 연계, 양해각서 조인, 공동제작 추진(2008년 10월)

아시아의 영상산업발전을 향한 협력관계를 심화시키고자 삿포로시와 한국의 부산광역시는 4일 부산시내의 호텔에서 제휴 각서에 조인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인구 약 365 만명으로 한국 제 2의 도시. 조인식은 2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되는 부산국제영화제에 맞춰 이루어졌습니다.

각서는 영화도시로서 알려진 양 도시가 영상 교육·인재육성, 국제공동제작, 국제공동영상유통의 3 분야에서 제휴할 것을 확인, 양 지역 제작자의 교류와 공동제작에 자금 등의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삿포로시의 이노우에 타다후미 경제국장과 부산광역시의 김형양 문화체육관광국장이 각서를 교환. 이노우에 국장은 “부산은 영상산업 분



야에서는 삿포로보다 선배격이다. 양 시의 영화 산업 발전을 크게 기대 하고 있다”라고 인사했습니다. 김형양 국장은 “향후 양 도시의 영화산업의 협력과 교류가 더욱 심화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라고 말했으며, 영화제에서는 당일, 올해 3월에 홋카이도 몬베쓰에서 촬영이 이루어진 배우 이민기와 이케와키 치즈루 주연의 한국영화 <오ishi 맨(맛있는 남자)>이 상영되어 호평을 받았습니다.

-2008년 10월 05일 홋카이도신문에서

【홋카이도의 이모저모】



안녕하세요! 저는 홋카이도청 캐릭터 ‘도초’라고 합니다. 제 집은 빨간 벽돌의 집, 아카레가(赤レンガ)예요.

한국분들께는 눈의 나라로 유명한 홋카이도의 숨은 매력, 색다른 사계절의 모습을 소개드리고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앞으로 홋카이도 시정촌(市町村)의 여러 친구들도 소개해드릴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 홋카이도의 개요

홋카이도는 남북으로 길게 뻗은 일본 열도의 북쪽에 위치하며, 83,456.38 km²(북방영토 5,036 km²)의 면적으로, 일본 전체 면적의 약 22%를 차지합니다. 인구는 약 560 만명으로 일본 총인구의 약 4.4%를 차지하며, 삿포로시(札幌市)에 약 190 만명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홋카이도 제 1의 도시라 불리는 삿포로는 미국의 뉴욕, 보스턴과 같은 위도에 위치하고, 제 2의 도시 아사히카와시(旭川市)는 프랑스의 마르세이유와 거의 같은 위도에 위치합니다. 위도로 본다면 홋카이도는 세계 주요 도시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자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홋카이도의 기후

저습냉량한 기후로, 장마가 없습니다. 여름에는 무더위가 없어 상쾌하고, 겨울은 일본해 쪽에는 눈이 많이 오며 태평양 쪽은 맑은 날이 많습니다.

※주요도시별 연평균 기온과 강수량(2008)

도시명	기온(℃)	강수량(mm)
삿포로	9.4	1,028
아사히카와	7.3	883
하코다테	9.8	1,184

◇ 홋카이도의 역사

홋카이도는 선주민인 아이누족이 ‘카이’라 부르며 살아온 땅입니다. 일본 본토로부터는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후, 1869년에 처음으로 개척사가 파견되어 ‘홋카이도’가 역사의 무대에 나타납니다. 불과 140년의 역사. 하지만 그 저변에 깔린 아이누의 역사와 문화가 지금의 홋카이도의 매력을 만들어냈습니다.



農業

홋카이도의 풍부한 토지에서는 논농사·밭농사·낙농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농업을 전개하여 국내에서 가장 많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한랭건조한 기상조건을 살려 농약과 화학 비료를 최소한으로 억제한 클린농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아름다운 경관과 자연과의 만남을 추구하여 농촌을 찾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어 차세대를 이끌어갈 영농자를 육성하고 신기술의 개발과 토지 기반 정비 등을 추진하여 양질의 안전한 농작물을 공급해 나가고자 합니다.



水産業

홋카이도는 태평양, 일본해, 오토츠크해의 3개의 바다로 둘러싸여 가리비조개, 연어, 다시마 등의 수산자원이 풍부하고, 전국 어업 생산량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일본 최대의 수산기지입니다.

양질의 단백질과 지방질을 다량 함유한 수산물은 건강하고 풍부한 식생활을 실현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에 홋카이도는 안전하고 맛있는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홋카이도에서는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자원관리나 재배어업, 수역환경의 보전에 힘쓸 뿐만 아니라 양질의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위생 관리의 고도화나 어항·유통가공시설의 정비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觀光業

홋카이도의 대자연과 문화, 그리고 그 곳에는 수많은 여행객을 매료합니다. 홋카이도의 관광객 수는 해마다 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은 대만에 이어 홋카이도 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의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홋카이도를 찾는 한국 관광객 중에는 골프나 스키를 즐기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며, 그 외에도 '오겐키데스카(お元気ですか)'라는 일본말을 전 국민에게 가르쳐주다시피 한 영화 리브레티의 배경이 되는 오타루(小樽), 소지섭이 출연한 소니 카메라 CF의 배경이 되는 후라노(富良野) 등을 찾아 홋카이도를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도 많습니다.

홋카이도 방문자 수 (명)

	2004	2005	2006	2007	2008
한국	63,850	70,050	133,850	169,300	139,100
총수	427,050	513,650	590,650	710,950	689,150

林業

홋카이도는 토지면적의 약 70%가 삼림으로, 전국 삼림면적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일본을 대표하는 풍부한 삼림 지역입니다. 이들 삼림은 주택자재 및 종이의 원료가 되는 목재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국토와 환경의 보전, 수자원의 함양, 보전휴양장소의 제공, 문화의 창조 등 생활을 안전하고 여유롭게 만드는 여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홋카이도에서는 이러한 삼림이 지니는 다양한 기능을 고도로 발휘하기 위하여 적절한 자원관리를 바탕으로 한 삼림 가꾸기나 임업활동의 활성화, 도민과 협동한 삼림 가꾸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풍부하고 양질의 농수산물 자원의 혜택을 받은 홋카이도는 식품 제조업의 출하액이 전국 제일로, 이는 지역의 경제나 고용을 지탱하는 중요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에 홋카이도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식품 제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고품가치 제품의 개발을 추진하는 등 지역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홋카이도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집적이 진행되고 있는 자동차 산업으로의 지역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고, 바이오·IT 산업 등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산업을 육성하고 진흥하는 데 힘 쓰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내외의 기업의 유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충실한 투자환경과 생활환경이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관련과 선단 기술형 기업을 시작으로 하여 의약품관련과 정보관련 사업 등 폭넓은 업종의 기업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工業

◇ 홋카이도에서 촬영된 영상들

<뮤직비디오>

- 조성모 '불멸의 사랑' (1998) - 오타루, 삿포로
- 조성모 '가시나무' (2000) - 오타루
- 김민중 '하얀 그리움' (2001)
- 김범수 '메모리' (2005) - 오타루, 삿포로
- 박기영 '그대 때문에' (2006) - 후라노
- 이투 '흰 눈' (2007) - 후라노

<CF>

- CJ 생생우동 (2002) - 오타루
- POSCO (2004) - 후라노
- 롯데카드 (2006) - 아사히카와
- 삼성휴대폰 (2006)
- BC 카드 (2006)
- Sony 카메라 α시리즈 (2008) - 후라노

<드라마>

- MBC '황태자의 첫사랑' (2004)
- SBS '소금인형' (2007)
- KBS '눈의 여왕' (2006)
- MBC '달콤한 인생' (2008)





청정공기와 대자연의 숨결,
낭만이 숨쉬는 홋카이도를 느껴보세요!

홋카이도에 대해 모두들 궁금해하시는 점들을 간략히 소개드립니다.

Q: 홋카이도를 여행하기 제일 좋은 계절은 언제입니까?

A: 일반적으로 제일 여행하기 좋은 계절은 초여름부터 여름이지만, 요즘은 겨울에도 눈과 얼음이벤트, 유빙 관광, 스노 액티비티 등 매력적인 관광상품이 많아져서 겨울에도 많은 손님들이 오십니다. 눈이 녹는 3월말부터 4월초 그리고 단풍이 끝나고 눈이 오기 전 11월쯤에 오시는 관광객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삿포르 눈축제



후라노 라벤더밭



하코다테 야경



봄(꽃잔디)



여름(유채꽃)



가을(단풍)



겨울(눈에 덮힌 마슈호)

Q: 홋카이도에서는 어디에 가면 좋습니까?

A: 2박3일 정도 여행을 하시려면 사실 지역을 좁히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관광지를 가보고 싶으시면 여러 관광 포인트가 서로 가까이 있는 도중앙지역(道央)이 좋습니다 (삿포르, 오타루, 도야코 호수, 노보리베쓰 온천 등 소재). 자연경치 구경, 온천, 식사 등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즐길 수 있습니다. '대자연경관을 느끼고 싶다!'는 분은 타이세츠/도카치지역(大雪·十勝) 등 도동(道東) 쪽 지역이 좋습니다 (구시로 습지, 시레토코 세계자연유산 등 소재). 자연경관이 웅장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역사순행을 좋아하시는 분, 전원적인 풍경이 나는 온천지역을 즐기고 싶으신 분께는 도남(道南)지역(하코다테)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소박한 풍경을 즐기시려는 분에게는 일본(홋카이도) 최북단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동북(道北)지역이 좋습니다.

Q: 어떤 옷을 입고 가면 좋습니까?

A: 홋카이도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날씨도 전혀 다릅니다. 여름 이외에는 몸에 걸칠 수 있는 옷옷 등을 가져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에는 따뜻하게 속옷을 입고 그 위에 코트 등으로 따뜻하게 입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 손발, 목 언저리를 따뜻하게 하면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Q: 홋카이도의 대표적 음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A: 홋카이도는 자연의 풍요로운 혜택을 받아 산해진미가 가득한 곳입니다. 신선한 해산물을 맛보기에 빼놓을 수 없는 스시는 물론이고, 홋카이도에서 잡히는 게는 대게, 털게, 꽃게 등 계절별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징기스칸이라 불리며 양고기를 숙주와 같이 철판에 구워먹는 음식은 홋카이도라고 하면 떠오르는 삿포르 맥주와 함께 꼭 한 번 드셔보십시오.

일본라멘의 발상지라 불리는 홋카이도 삿포르!
일본 된장인 미소를 풀어넣은 삿포르의 미소라멘은 홋카이도 여행 중 빼놓을 수 없는 메뉴!



오타루 운하



스시(위)와 털게(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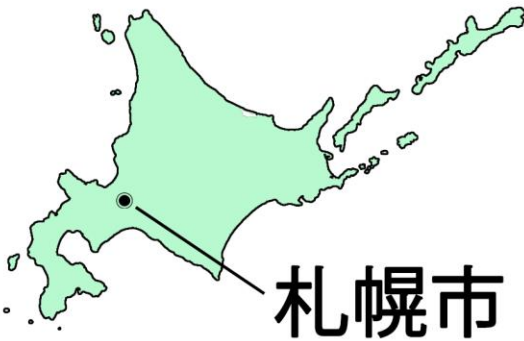


징기스칸과 맥주(아래)



※자료제공: 홋카이도 관광진흥기구 (<http://hokkaido.japanpr.com>)

삿포로시는 인구 190 만(홋카이도 인구의 약 30%)이 넘는 일본에서 다섯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1972 년, 인구 50 만이 넘을 경우 지정되는 정령지정도시가 되면서, 홋카이도에 속하면서도 독립적인 행정결정을 할 수 있는 도시로 지금까지 발전해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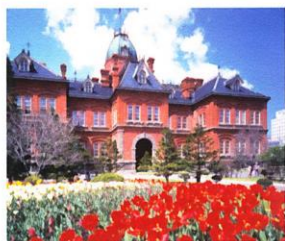


이시카리 평야의 남서부에 위치하며, 면적은 1,121.12km² 로, 지명인 '삿포로'는 원주민 아이누족이 '삿(건조한) 포로(큰) 벧(강)' 이라고 부르면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연평균기온은 약 8.5℃, 연간강수량이 약 1,100mm 로 여름은 서늘하고 겨울에도 비교적 홋카이도의 다른 지역보다 눈의 양이 많지 않아 사람들이 생활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항이 위치하는 치토세로부터 삿포로 시내까지는 공항직결역을 이용하여 JR 열차로 36 분만에 도착할 수 있으며, 삿포로 시내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오도리 공원에서는 삿포로 눈축제를 비롯한 다양한 마쓰리와 이벤트가 연중 개최되어 수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JR 삿포로역에 도착했다면 다음과 같은 관광 코스는 어떠십니까? 홋카이도는 개척 당시 미국에서 여러 학자와 기술자를 초청하여 도시가 블럭형태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럭 호수만 알면 어디든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홋카이도 개척사가 설치된 홋카이도청 구 본청사의 소재지는 주오쿠 기타 3 니시 6(中央区北 3 西 6). 동서와 남북으로 블럭 하나 당 1로 치고(한 블럭은 약 100 m), JR 삿포로역이 주오쿠 기타 6 니시 3(中央区北 6 西 3)에 위치하기 때문에, 남쪽으로 3블럭, 서쪽으로 3블럭 가면 붉은 벽돌의 다음 건물이 나옵니다.



홋카이도 구 본청사

'아카렌가(붉은 벽돌)'라는 애칭으로 사랑받는 홋카이도청 구 본청사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의사당을 모델로 1888년에 세워졌습니다. 국가 지정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홋카이도 개척사의 정책결정의 장이 되었던 이 곳에서 홋카이도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건물 앞 정원은 계절마다 화목이 자태를 자랑하는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며 눈축제 기간에는 이 곳에 특별히 3m의 거대 눈사람이 제작되어 사람들의 발길을 끕니다. (삿포로 역에서 도보 5분)

여기가
우리집이에요.
많은들 놀러 오세요!



아카렌가 구경이 끝났다면 다음은 시계탑(기타 1 니시 2(北 1 西 2))으로! 아카렌가에서 남쪽으로 2 블럭, 동쪽으로 4 블럭, 멀리서도 정시마다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아카렌가에서 도보 10분)



시계탑(時計台)

삿포로의 상징 시계탑은 삿포로 농학교 연무장으로서 1878년에 건축되었습니다. 국가 지정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관내에는 시계탑의 역사를 소개한 패널이 전시되어 있고 시계가 움직이는 원리를 대형 화면으로 해설한 코너도 있습니다.

오도리 공원 (大通り公園)

동서 약 1.5km 에 이르는 도심의 오아시스 오도리 공원은 삿포로 시내의 남과 북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거리입니다. 분수와 조각 화단으로 아름답게 치장한 이 공원은 2월의 눈축제, 5월의 라일락 축제, 6월의 요사코이소란 축제, 7,8월의 야의 맥주 가든, 9,10월의 가을 이벤트, 그리고 11, 12월의 화이트 일루미네이션 등 연중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공원의 오토리 니시(西)1 부터 12 까지 위치하고 있으며 니시 1 에 있는 삿포로 TV 탑은 도심의 랜드마크가 되고 있습니다.



오후에 삿포로 시내에 도착했다면 여기까지 걸어서 돌아보면 출출할 때. 홋카이도에 오면 꼭 먹어봐야 하는 세 가지, 옥수수, 감자, 소프트크림(유제품)!!! 오도리 공원 노점에서 파는 구운 옥수수나 삶은 옥수수는 물론이고, 오도리 공원에 있는 하나바타케 목장(花畑牧場) 직영점의 아이스크림이 맛있었습니다.

달콤한
홋카이도산
옥수수(300엔)
강추입니다!! ^o^



저녁 때가 되어 홋카이도만의 대표적 음식을 먹어보고 싶으시다면 남쪽으로 더 내려가 스키노(南 3~9 西 2~8)로! JR 역 주변은 밤 9시가 되면 영업이 종료되지만 스키노는 밤새도록 불빛이 꺼지지 않습니다. 4500 점이나 된다고 하는 음식점과 오락 시설이 영업하고 있는 스키노는 도쿄 이북의 최대 활타가로 알려져 있으며 삿포로 사람들은 물론 국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게요리, 징기스칸, 스시 등 홋카이도의 먹거리는 물론이고, 라멘요코초(ラーメン横丁)라고 해서 라멘집이 모여있는 거리가 있습니다. 홋카이도의 맛과 기나긴 밤을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삿포로시와 관련한 더 자세한 관광 정보는 '관광삿포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welcome.city.sapporo.jp/tourism/k/index.html>)
※ 편집 및 발행: 홋카이도 종합정책부 지사실 국제과
(北海道札幌市中央区北 3 条西 6 丁目)
TEL : +81-11-204-5114
FAX : +81-11-232-4303